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로마서 1:7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좃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100%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죽은 영을 하나님께서 먼저 살려 주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의 의지가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의지를 해방시켜 주어야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100% 은혜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은혜인지 자신의 의지인지 혼동되어, 일평생 내내 앓은뱅이 상태를 면치 못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에서 ‘평강’ 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I. 평강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에서 은혜를 ‘평강’ 앞에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은혜가 언제나 먼저 이끌어 갑니다.

요한 사도는 말하길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 했습니다.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될 때에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란 무엇이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짐으로 오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말합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선,

소극적으로는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가 해소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며, 다음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각 자의 마음을 다스려야 마음의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실 때 마음에 맺히는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은 성령님의 임재의 선물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평화가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계속된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불신자들도 이 것을 어렵듯이 이해하고, 가화 만사성이란 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요한 사도가 말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는 말도 이런 뜻입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해, 성령님이 그 마음에 왕으로 임제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평강의 축복을 누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 : 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언제나 마음의 평안이 넘칩니다. 환경을 능가하는 기쁨과 평화가 넘칩니다.

II. 그러면 하나님과 평강이 인간들의 마음 속에 없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사람이 하나님과 불화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동산은 문자 그대로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동산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평강과 임재를 즐기며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아브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였더라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뱀의 유혹을 빠져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에 의해 타락한 아담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과 불화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불화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자, 동산 나무 가지 사이에 숨어,
고개를 빼죽 내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끄러움 없이 뛰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되도록 멀어지려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불화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지면 곧바로 양심이 죄를 증거함으로 인해
마음의 평화가 깨집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고쳐 주시기 위해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3:11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렇지만 아담은 적반하장 격으로

창세기 3:12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전가를 하며, 하나님을 blame 하고 나섰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담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은 아담 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카인은 그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 죽였습니다.

만성천자라고 하는 다윗은 자기의 타락한 욕망의 성취를 위해 충실한 장군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이 세상의 어디를 보아도 부패한 마음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의 마음 속에 있는 부패된 생각을

에레미야 선자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17 : 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래서 자연인은 모두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모두 하나님과 불화의 상태에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은 모두 부패한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 : 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아무리 곱게 꾸며 놓았어도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중생하여 새생명으로 살지 않는 불신자 안에 있는 사상과 생각은 모두 죽은 행실이요,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기 위해선 죄를 제거하여 불화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불화를 해소하는 첫 단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불화가 해소되고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일단계가 실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죄인을 위해 피를 흘려 주신 그 은혜에 의해 하나님과의 불화가 해소되는 것입니다.

II. 다음은 신자가 마음에 평안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함으로 신앙 생활이 거기서 다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교 신자들이 일 년에 한번 절에 갔다 와서 불교신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매주일 교회에 나오니 그것으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신앙 생활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선 여기서 믿음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불신자가 죄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과 불화하는 것과는 달리, 신자에게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과 불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근원적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자신의 우상이 되면 마음의 풍량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일류 대학을 나온 수재들입니다.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박사학위를 따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부에 열을 내지를 않습니다. 공부는 안하고 딱 일만 열심히 합니다.

주위에 있는 다른 학생들은 박사 학위를 따가지고 한국에 나간다고 송별회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은 아직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얼마후 어떤 사람은 벌써 안식년이 되어 미국에 연수차 다시 들어왔다고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은 아직 학위를 못 따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을 만나기가 창피합니다. 남보기가 부끄러워집니다.

이 사람의 아내는 남편의 학위 문제, 자신의 체면 문제로 인해 영육 간에 큰 고통이 생겼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 위장병이 걸렸습니다.

이 사람의 아내는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금식을 하면서 작정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너는 박사학위가 네 생명보다 귀하냐?” 하시더랍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을 받고 나니 자신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박사 학위가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마음속의 우상을 제거하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적립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 되니,
그 까짓 박사 학위가 뭐 그리 중요하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위를 포기하니 마음의 평화가 왔습니다.
남편을 그 상태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비지네스도 우상이 될 수도,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할 때 이것이 우상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영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쟁의 양상이 바뀐
것일 뿐입니다.우리의 영적 전쟁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
여호수아 24 장 14 절에서 다음과 같은 유언적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 24 : 14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 24 : 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신도 같이 섬기든지 양자택일을 하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 : 14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기도를 하여도 평안이 열려 오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작정 기도를 하든지, 금식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할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 더 깊은 경지로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관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면 하늘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조그마한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시시한 문제는 그냥 넘어 갑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위에 서 있으면 마음이 담대하져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마음이 닫히면 먼지 한 톨 앉을 자리가 없지만

열린 마음은 우주를 담고도 남는다” 또,

“마음이여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에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한번 웅졸하여지면 바늘 하나 꿸 자리가 없구나”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성립하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 옵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새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고, 공중에 떠 가는 구름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 :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